

대단원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중단원	01.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
토론 주제 성취 기준	농경과 목축으로 인간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학년-반	[10한사01-01] 고대 국가의 성립·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지배 체제의 성격을 이해한다.		
	번호	이름	

학습목표

- ▶ 선사시대의 역사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내 생각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 ▶ 토의 활동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 기르기
- ▶ 친구들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습득하여 의사소통 시에 필요한 기술 배우기

생각넓히기

인간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졌을까?

역사를 처음 공부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사에서 묘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역사책, 그 중에서도 역사의 큰 흐름을 다루는 책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짧게 요약해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사시대의 역사는 수백만 년에 걸쳐 있음에도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압축되곤 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의 역사를 읽다 보면 마치 한 인간이 갓난아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겨우 두 발로 걷기 시작하던 동물에서, 도구와 불을 사용하는 인류로, 그리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인간으로, 마침내는 국가를 이루어 살아가는 문명인으로, 인간의 삶은 몇 단계의 도약을 거쳐 점점 더 나아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삶이 점차 발전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보다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타당할까요? 시간이 흐르고, 역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인간의 삶은 더 나아져 갔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구석기시대 사람들과 신석기시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서, 인간의 삶이 실제로 점점 더 나아졌는지 살펴봅시다.

의식주를 근본적으로 바꾼 농경과 목축

역사가들은 약 1만 년 전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것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농경과 목축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을까요?

수백만 년 전 인류가 처음 등장한 이래로, 인류는 도구를 만들고, 불을 활용하며,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점차 다른 동물과 구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량을 얻는 방식만큼은 오랫동안 다른 동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해 먹고살았지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에 식량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곳에 터전을 잡더라도 계절이 변하면 동식물의 분포도 바뀌었으므로 또다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야 했어요. 이동하며 생활한 탓에 오래 머물 집을 짓지 않고 동굴이나 바위 그늘, 임시로 지은 막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약 1만 년 전, 인류의 생활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식량을 얻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사냥과 채집으로도 식량을 얻었지만 이 무렵부터 점차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것이 식량을 얻는 주된 방식이 됩니다.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고 잘 보살피면 몇 배의 수확물로 돌아오는 농업은 당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인간은 동물들 가운데 온순한 녀석들을 골라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양과 염소, 소, 말, 돼지, 닭이 인간의 목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 덕에 인간은 사냥이 실패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동물들의 고기와 젖, 알과 가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인간은 식량을 찾아다니는 존재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존재로 변화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터를 잡으면서 인간의 의식주 또한 크게 변했습니다. 먼저, 동굴이나 바위 그늘이 아닌 집다운 형태를 갖춘 거주 공간을 지어 생활합니다. 대표적으로 움집이 있어요. 움집은 바닥을 움푹 파서 지은 집으로, 가운데 불을 지피는 화덕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집은 용도에 따라 방을 구분해 사용하는 형식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이동하지 않고 한 지역에 살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게 옷을 제작했습니다. 가락바퀴라는 도구를

이용해 실을 만들고 동물 뼈로 만든 바늘에 실을 연결해 천을 꿰매서 옷을 지어 입었지요. 또한 가축과 작물에서 옷의 재료가 되는 가죽과 섬유를 얻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인 토기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신석기인들은 토기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식량을 저장했을 것입니다. 농경 생활 초기에 인류가 기른 작물은 대체로 쌀과 밀, 보리 같은 곡류였습니다. 곡류는 보관만 잘하면 1~년 정도는 두고 먹을 수 있었어요. 또한 토기를 활용해 음식을 삶거나 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음식의 영양분을 더 효율적으로 섭취하게 되었고 인구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농경과 목축으로 인한 이 같은 변화를 통틀어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혁명은 관습을 깨트리고 단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석기 혁명이란 말은 신석기시대에 인간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꾼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농경과 목축은 인간 집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농사를 지으면 자연 상태와 비교했을 때 같은 면적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살 수 있겠지요? 게다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었어요. 이동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돌보미 필요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신경 쓸 것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착민은 그럴 필요가 없어 식량만 충분하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력으로 쓸 수도 있고!) 이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어요.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집니다. 이를 위해 인간은 농사의 규모를 늘려야 했고, 그러자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때부터 같은 핏줄의 사람들이 모여 씨족 공동체를 만들었고, 몇 개의 씨족 공동체가 모여 부족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커다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구석기시대보다 큰 규모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씨족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할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먼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식량 생산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곡식이 잘 자라도록 농경지에 물을 대고 잡초를 뽑아야 했습니다. 맹수로부터 가축을 지키고, 가축의 털을 깎고 젖을 짜는 일도 해야 했지요. 생산된 식량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일도 식량 생산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저장한 식량을 다른 부족이 가져갈 수 없도록 지키는 것 또한 필요했습니다. 여러 부족이 서로를 공격해 식량을 빼앗는 일이 종종 벌어졌거든요.

일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농부와 양치기만으로는 큰 공동체를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웃 부족의 위협에 맞설 군인이 필요했고 군대에 무기를 대 줄 장인의 역할도 중요해졌어요. 식량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사람과 그것을 판매하는 상인도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직업은 충분한 식량이 존재했기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잉여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오로지 농사에만 전념하고 다른 일에 시간을 쏟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 모든 변화는 사냥과 채집에서 농경과 목축으로 생활 방식을 전환한 데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경과 목축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졌대구요?

여기까지만 보면, 신석기 혁명은 인류 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 혁명은 정말 긍정적인 변화만 가져왔을까요?

최근 역사가들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영양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연히 구석기인이 신석기인보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거 라고 짐작했습니다.

사냥과 채집으로 그때그때 먹거리를 마련했으니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웬 걸요! 두 시대의 유골을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해 봤더니 구석기인이 신석기인보다 더 건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석기인은 사냥과 채집을 했기에 신선한 고기와 과일, 채소 등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음식을 통해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동물을 사냥할 수도 없었고, 원하는 식물을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신석기인의 영양 상태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주로 밀, 보리, 쌀과 같은 곡식을 먹다 보니 탄수화물 외에 다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식물만 재배했기 때문에 가뭄이나 병충해에 취약했습니다. 예컨대 밀 농사를 짓는 해에는 밀 곰팡이가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축을 길렀는데 왜 고기를 먹지 못했을까요? 사냥한 동물과 달리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곧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키워서 새끼도 보고, 농사일에 동원해서 재산을 불려야 했지요.

신석기인들은 이전까지 알지 않았던 여러 질병에도 노출됩니다.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농경 생활을 한 인간의 유골에서 디스크와 관절염의 흔적이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허리를 숙이거나 관절을 쓰는 일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가축을 기르면서 동물에게만 나타나던 질병이 인간에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인간과 동물이 공통으로 감염되는 병)이 등장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인간에게 옮은 것이란 추측이 있

지요? 인간이 가축을 기른 이후 동물과 접촉할 일이 많아지면서, 홍역, 천연두, 인플루엔자(독감) 등 원래는 동물이 걸리던 감염병이 사람에게 발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한번 감염병이 유행하면 질병이 쉽게 전파되고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신석기 혁명 이후 사람들의 여가도 줄어들었습니다. 구석기시대에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할 때를 제외하면 자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경과 목축으로 인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농사란 씨앗을 뿌려 놓고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물을 끌어오고, 잡초를 열심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또한 메뚜기와 참새 무리로부터 농작물을 지켜야 했어요. 목축 역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가축들의 먹이를 챙기고 건강을 돌봐야 했으며, 야생동물들이 가축을 해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했지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싸움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동 생활을 할 때도 무리 간에 식량과 영역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착 생활 이후의 싸움은 단순한 영역 다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죽여 농지와 가축을 빼앗고, 심지어 적을 노예로 삼아 부릴 수 있었어요. 경작지와 축사, 식량 창고를 빼앗기면 도망가더라도 굶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방어하는 쪽도 목숨 걸고 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 가까운 정도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농경은 장기적으로 계급사회의 출현을 이끌기도 했어요. 농경 사회가 성장하면서 저장한 곡식과 기르는 가축이 사람들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어요. 이후 사람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화 되면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답니다. 지배자와 그를 돕는 관리들은 육체노동에서 해방되고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피지배층인 대다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간신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식량에 의존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가 등장하기까지는 수천 년의 세월이 더 흘러야 했지요. 이렇듯 농경과 목축은 인간 사회에 계급과 불평등이라는 부작용을 안겨주었습니다.



신석기 혁명이란 말의 함정,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신석기 혁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약 1만 년 전부터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정착 생활을 하려면 자급자족이 가능한 환경, 즉 농경에 적합한 기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건조한 지역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서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식이 유목(遊牧)이었어요. 유목은 이동하며 가축을 기르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유목민은 소, 말, 양, 낙타 등을 기르며 그들의 고기와 젖과 가축으로 생활했습니다. 유목민은 한 장소에서 가축에게 풀을 먹이다가 풀이 부족해지면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건조한 기후에서는 풀이 빨리 자라지 않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유목민은 계절에 따라 이동했는데, 여름에는 넓은 평야에 가축을 풀어놓았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 산 아래나 계곡 사이에서 생활했어요.

그렇다면 유목민의 삶은 구석기시대 수렵채집민이나 신석기시대 농경민의 삶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유목은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생활방식이었지만 유목민의 삶도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뭄이나 한파가 닥치면 평야의 풀들이 다 죽어 버렸고, 이에 유목민과 가축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전부 만들 수 없었던 유목민은 종종 정착민이 사는 도시를 찾아가 교역하거나, 그들의 지역을 침략해 물건을 빼앗아 쓰기도 했어요. 유목민 역시 어떤 면에서는 구석기인이나 신석기인처럼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처럼 신석기 혁명으로 농경과 목축을 통한 식량 생산이 가능해졌지만, 모든 인류가 생활 방식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목민 뿐만 아니라 농경을 하지 않고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했어요.



농경과 목축으로 인간의 삶은 진보했나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신석기 혁명으로 인간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수만 년 전의 구석기인과 현재의 우리를 비교하면 분명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간이 진보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변화를 선형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가 변화해 온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과거보다 오늘 더 진보했거나 전 지구적으로 모두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을 거리를 찾아 이곳저곳 헤매야 했지만 비교적 자유롭고 영양 상태도 좋았던 구석기인이 있었던 반면,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양 상태는 부실하고 여가를 누릴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질병에 노출된 신석기인도 있었어요. 신석기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기에도 어떤 사람들은 농경 대신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 적응해 유목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그렇다면 과연 신석기 혁명으로 인간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걸까요? 또 신석기 혁명이 가져온 변화가 그 당시를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생각정리하기



오늘 읽은 책 내용에서 핵심 단어를 5가지만 뽑아보세요.



오늘 읽은 책 내용과 모둠원들과의 토의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오늘 토의한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혹은 참신했던 내용이 있다면 작성해보세요.

친구 이름 :

이유 :

친구 이름 :

이유 :



오늘 나의 역할과 토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작성해보세요.